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4년
2015년 3월 3일
음력 1월 13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법등(구창희)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9년 제 184 호

불교총지중 총기44년 상반기 49일 불공 입제

전국 서원당에서 2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불교총지중은 2월 23일 전국 사원에서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들어갔다. 이번 불공 입제일은 설 연휴로 3일 늦추어졌다.

총본산 총지사(주교 법등정사)와 전국 사원은 총기44년 상반기 49일 불공에 스승과 교도 모두가 진호국가불사와 자녀 잘되기 서원으로 입제했다. 총지사 주교 법등정사는 설법을 통해 "전반기 49일 불공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자녀 잘되기 불공을 병행해야 된다.』며 원정 대성사에서 제정하신 총지중의 특별기도 중의 하나입니다. 총지중의 모든 스승과 교

도가 49일 동안 용맹정진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수행 기간을 통해 부모로서 자식에게 부끄러운 점은 없는지 참회하고 자식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입제에 드는 교도들을 격려했다. 이와함께 "49일간의 정진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참회와 자성(自省)의 시간을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호국가불사〉의 진언은 "옴홍야호사"이다. 이 진언불사 출처는 종조 원정 대종사가 밀교경전인 "수호국계주다라니경"에 근거했다. 의계의 정립은 총기8년(1979

년) 4월 26일 춘계강공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이미 1975년부터 진호국가불사의례를 시행했었다. 내용은 나라발전,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한다. 이 호국 불사는 1년에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각 49일 동안 행한다. 또한 총기20년(1991년)부터 종령 특별 유시로 자녀가 잘 되어 나라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한 자녀 불공이 시작되었다. 상반기 49일 불공은 4월 12일(양력)에 회향된다. 회향일의 의미는 부처님오신날이 음력 4월 8일이지만, 종단은 올해만 4월 12일에 회향한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신임 임원단

총지중 총본산 총지사 방문



▲ 총지사 본전에 참배하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신임 임원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일본측 신임 임원단이 불교총지중 총본산 총지사를 방문했다.

에서 종단 홍보 동영상 시청하고, 총지사 서원당과 원정 기념관을 참배하였다. 특히 원정 대성사의 유묵과 유품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총지사=김종열 기자

2월 26일 제36차 한국대회 사전 협의 방문한 일본 측 대표단은 단장 일한불교교류협의회 회장 신임 후지타 류조 회장 스님, 이치카와 치코 부회장 스님, 니시오카 료-코 이사장 스님, 쇼도 강수는 부이사장 스님, 와타나베 신고 사무총장 스님 오나베 호정 사무차장 스님 등 9명이 방문했다.

대표단은 한일불교 사무총장이자 총지중 통리원장인 법등 정사의 안내로 통리원 부장실에서 간단한 차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법등 정사는 "오늘 방문은 총지중 중사에 큰 일로 기록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한일 양국간의 불교문화 교류와 총지중간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발전하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며 일본측 대표단을 환영했다.

일본 측 대표단은 통리원 2층 반야실

지면 안내

- 1면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신임 임원단 총지사 참배
- 2면 김기자가 가다 밀인사 안옥진 보살
- 3면 통신문편지 / 정진의 위력
- 4면 미안마 불교
- 5면 명사칼럼 / 김시행 거사
- 6면 서하보살의 불교문화산책
- 7면 학술특집
- 11면 서적에세이 공부하다 죽어라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벼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 관행을 실천해 나갑니다.

둘째, 정제(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셋째, 즐거움 마음으로 수순(隨順)합니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보(弘布)합니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신년하례

사무총장 법등 정사 외 100여명 참석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 신년하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부산과라미타정초년협회장)는 지난 11일 부산 코모도호텔 해마루홀에서 '창립 11주년 기념 및 올미년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했다. 여성부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산하 기관이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법등정사(총지중 통리원장)는 "희망 가득한 올미년 새해를 맞아 우리나라 불교 1번지인 항구도시 부산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일불교 교류의 꽃이며 보배인 여성부가 화합하고 발전해 한일불교문화교류에 더욱

역할을 잘해줄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백명숙 회장은 "지난 11년을 걸어 오면서 스님들의 격려가 있어 한일 불교문화 교류협의회 여성부가 더욱 발전했다"며 "한국의 우수한 불교문화를 일본에 전하고, 양국 교류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신년하례 참석자들은 일렬로 서서 악수를 나누며, 새해 덕담을 나누고 한일 불교문화교류협회와 여성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신년하례 회에는 사무총장 법등정사(총지중 통리원장), 사무차장 향은스님(원효종 총무원장), 전 조계종 사회부장 양산스님, 상임이사 혜광스님, 진언종 원장 혜천스님, 운남스님(대승종), 관음종 총무부장 도각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대명 스님, 감사 보문종 금주스님, 이사 혜륜스님, 손안식 감사, 이종진 차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이상록 통신원



원대한 꿈을 갖고
실력을 연마하는
총지인!

나라의 희망이요, 꿈이요, 이상인 청소년을 위한 전통있는 역사의 터전!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교감 김재근



김기자가 가다

50년을 하루 같이 진언 염송의 길을 가다

밀인사 안옥진 전 신정회장

50년, 참으로 긴 세월이다. 宗祖法說集 P114 제1절 불공공덕(대방광불불의 경계경) 제②에는 “하루 중에 행복함은 새벽불공 함에 있고, 철일 중에 행복함은 자성일에 빠짐없이 불공정진 함에 있고, 한달 중에 행복함은 월초불공 함에 있고, 일 년 중에 행복함은 새해불공 함에 있고, 평생으로 변함없는 그 종지(宗旨)에 있느니라. <중조법설집의 원문에 따라 발췌 함>”는 원정 대성사의 말씀이었다.

이를 50년 동안 지켜온 노 보살이었다. 밀인사 안옥진 보살이다. 2월 15일 자성일 법회에 밀인사를 찾았다. 동묘 건너편으로 관음종 목각사와 담장을 마주하고 있는, 총지종 개종 초기 사원 중의 하나다. 대중불사, 동참불공, 천도제를 지내고 공양간에서 안옥진보살님을 만났다.

참 곱게 늙어 가시는 구나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올해로 82세를 맞았다 언뜻 얼굴만 봐서는 60대 중반으로 느껴질

정도로 혈색이 좋았다. 그리고 진언 염송 수행으로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자애로움이 묻어나는 미소로 교도들을 대했다. 기차도 한참을 그 따뜻한 웃음에 젖어 마음이 한없이 편안함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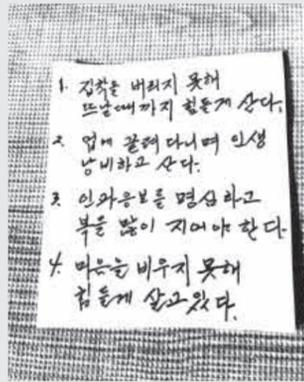
안옥진 보살님은 총지종의 창종과 함께한 원로 교도이다. 경주 시내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유학자의 집안에서 태어난 보살님은 같은 경주 건천 출신의 각자님을 만나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다. 그러나 시집살이는 녹녹치 만은 않았다. 합방을 한지 10년이 지나도록 후손을 보지 못 한거다. 마음은 다급했으나 달리 방도가 없었다. 각자님의 발령으로 서울로 이사를 한후 우연한 기회에 법장화 전수님과 만나 당시 진각종 왕십리 심인당에 다니기 시작했다.

원정 대성사께서 입교개종을 선언하고 총지종을 창종하자 법장화 전수님이 새로 개원한 서원당에 동참해 준제법을 통한



▲ 밀인사 안옥진 전 신정회장

진언 수행에 정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에서 서울로 발령을 받은 각자님이 보직을 받지 못하자, 하루는 각자님께 “제가 철일 정진을 해서 부처님께서



▲ 자신을 경책하는 메모

응답이 없으면 이 교를 믿지 않겠습니다”고 말하고 죽음을 다해 비로자나 부처님께 서원 정진 하였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각자님이 원하던

자리로 보직 발령이 나고, 부처님의 가지력을 온몸으로 체득한 보살님은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정진의 길에 들었다. 물론 각자님도 보살님의 기도 정진에 적극 후원하였다. 또 하나의 기쁨은 아이를 잉태 한 것이다. 결혼 한지 십 수 년 만이다.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듯이 부처님의 가지력은 그 넓고 깊음을 알 수 없을 정도였다.

안옥진 보살님은 밀인사의 설립과 헌공에 큰 역할을 한다. 밀인사가 자리를 잡고 단단한 진언의 반석위에 오를 지난해 수 십 년 회장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 주었다.

보살님은 어렵게 얻은 아들이 결혼하여 손녀 하나를 두었다. 손녀 이수연 양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영특함을 보여 과외나 학원 한번 보내지 않았는데, 당당히 연세대학교 영문학과에 합격했다. 보살님은 이 또한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생각한다.

보살님은 이번 경사에 먼저 원정 대성사와 효강 종령님, 원당 정사님, 묘심해 전수님의 불공 공덕에 감사드린다는 말을 먼저했다. 그리고 평소 항상 새기면서 살라며 메모하여 다니는 작은 쪽지를 보여 주었다. 메모지에는 「1. 집착을 버리지 못해 떠날 때 까지 힘들게 산다. 2.업에 끌려 다니며 인생 낭비를 하고 산다. 3.인과응보를 명심하고 복을 많이 지어야 한다. 4.마음을 비우지 못해 힘들게 살고 있다.」고 적혀있다. 보살님은 탐, 진, 치 삼독을 없애고, 육행을 실천하고 삼밀관행으로 즉신성불을 이루고자 오늘도 육자염송 정진의 깊은 삼매에 빠져든다.

취재=밀인사 통신원 김옥임, 김중열 기자.

불교만 10년간 인구 2% 감소 ‘노력필요’

시주 불사강요 성직자상 훼손등 불만 가장 많아

10년 전에 비해 개신교와 천주교 인구는 정체인 가운데 불교 인구만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해 4월 17일~5월 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해 펴낸 ‘한국인의 종교’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별로는 불교 22%, 개신교인 21%, 천주교인 7%, 비종교인 50%로 종교인 가운데는 불교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지난 1984년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 의식’에 대한 조사를 처음 한 이래 1989년과 1997년, 2004년에도 비슷한 조사를 했다.

불교적 성향 파악을 위해서는 ‘윤회설(輪廻說)’과 ‘해탈설(解脫說)’에 대한 의견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에 대해서는 28%가 ‘그렇다’, 53%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누구나 진리를 깨달으면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해탈설에 대해서는 ‘그렇다’ 35%, ‘아니다’ 51%로 나타났다.

윤회설 긍정률은 1984년 21%에서 1997년 26%로 늘었고 그 후로는 비슷하며(2004년 27%, 2014년 28%), 해탈설 역시 1984년에는 한국인의 절반(49%)이 ‘그렇다’고 답했으나 1997년에는 그 비율이 35%로 감소했고 이후로는 30% 초중반에 머물고 있다(2004년 30%, 2014년 35%).

불교 사상에 기반한 두 항목에 대해 불교인의 약 40%가 긍정했고(윤회설 38%, 해탈설 42%), 이는 1997년이나 2004년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신교인의

윤회설(34%)이나 해탈설(43%) 긍정률이 2004년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늘어 불교인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른 점이다.

비종교인의 경우, 윤회설에 대해서는 지난 30년간 긍정률이 20% 내외로 유지됐으나 해탈설 긍정률은 1984년 48%에서 2004년 28%로 감소했고 2014년에는 27%로 10년 전과 비슷했다. 요약하면 불교적 성향은 지난 30년간 불교인-비종교인 차이보다 불교인을 포함한 종교인-비종교인 격차가 컸다.

또 ‘대부분의 종교 단체가 종교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13%, ‘어느 정도 그렇다’ 50%, ‘별로 그렇지 않다’ 29%, ‘전혀 그렇지 않다’ 4%로 ‘그렇다’(63%)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33%)를 크게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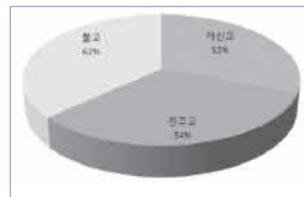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인(52%)과

천주교인(54%)은 종교 단체가 본래의 뜻을 잃어버린다는 데 절반 가량만 동의했으나 불교인(62%)은 그 비율이 좀 더 많았고 비종교인은 71%에 달해 대체로 종교인보다 비종교인이 현재 종교 단체에 대해 좀 더 비판적 입장이었다.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개신교인(46%)과 천주교인(44%)에서 비교적 많았고 그 다음은 불교인(36%), 비종교인(24%) 순이었다. 특히 ‘대부분의 종교 단체는 참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 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3%, ‘어느 정도 그렇다’ 45%, ‘별로 그렇지 않다’ 24%, ‘전혀 그렇지 않다’ 4%였다.

종교별로 ‘그렇다’는 응답은 개신교인(53%)에서 가장 적었고, 천주교인(62%), 불교인(67%), 비종교인(76%) 순으로 많아 개신교인과 비종교인 간 인식 차가 가장

종교단체 본래뜻 잃어



종교별로 보면 불교인(88%), 천주교인(89%), 비종교인(89%)은 종교 기관의 사적 상속 반대 90%에 육박했고 10년 전과도 비슷했으나, 개신교인에서만 그 비율이 91%에서 81%로 감소해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였다.

요즘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각이 없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매우 많다’ 22%, ‘어느 정도 있다’ 65%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매우+어느 정도) 있다’고 답했고 ‘(별로+전혀) 없다’는 13%에 불과했다.

품위나 자각이 없는 성직자가 많다는 의견은 불교인(88%), 개신교인(85%), 천주교인(89%), 비종교인(87%) 등 종교를 불문하고 90%에 육박했다.

일반인(비종교인과 종교인 포함)과 종교인이 각각 ‘이웃과 타인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는 말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묻은 결과, 일반인에 대해서는 ‘(별로+전혀) 지키지 않는다’는 응답이 66%였고 ‘(매우 잘+어느 정도) 지키고 있다’는 34%로 부정률이 긍정률을 크게 앞섰다. 종교인에 대한 평가 역시 ‘지키지 않는다’가 55%, ‘지키고 있다’가 45%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다.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눴어요

개천사	이희권	1/27	10,000
	곽노선	2/10	20,000
	강순시	2/24	10,000
관성사	황성녀	1/28	10,000
	김홍조	1/28	10,000
	인선	2/24	20,000
기로	해정	1/29	10,000
	대관	2/24	10,000
	밀공정	2/24	10,000
	법수원	2/24	10,000
	법장화	2/24	10,000
	법지원	2/24	10,000
	불멸심	2/24	10,000
	사홍화	2/24	10,000
	상지화	2/24	10,000
	수증원	2/24	10,000
	총지화	2/24	10,000
	선도원	2/24	10,000
단음사	법연지	2/17	10,000
만보사	정덕순	1/30	10,000

밀인사	정정희	1/28	5,000
	이혜성	1/29	30,000
	이성수	2/22	10,000
	이수연	2/22	10,000
	이채원	2/23	10,000
밀행사	무명씨	2/24	30,000
백월사	진평	2/16	5,000
법천사	김정숙	1/30	10,000
	김정숙	2/23	10,000
벽룡사	양정현	2/9	10,000
	양지현	2/9	10,000
선립사	심지장	2/12	10,000
수인사	김봉기	1/27	10,000
	무명씨	1/29	10,000
	정순득	2/13	10,000
승천사	원봉	2/13	10,000
	지선행	2/13	10,000
실보사	이순옥	2/3	10,000
실지사	송우섭	1/29	10,000
	유승태	2/12	10,000

운천사	무명씨	2/9	10,000
	이성미	2/11	50,000
일원어린이집	권향덕	1/26	10,000
	하재희	1/26	30,000
	이준동	1/26	10,000
	서선숙	1/26	10,000
	김지연	1/26	10,000
	이지민	1/26	10,000
	강경화	1/26	10,000
	김용미	1/27	10,000
	박문실	1/27	10,000
	구미자	2/2	10,000
	천소영	2/12	10,000
	권향덕	2/25	10,000
	이준동	2/25	10,000
	김지연	2/25	10,000
정각사	김문수	1/28	10,000
	김문수	2/25	10,000
지인사	허성동	2/12	30,000

지성	2/13	10,000	
승효계	2/13	10,000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1/26	30,000
	황화성	2/25	30,000
총지사	이인성	1/29	30,000
	법등	2/2	30,000
	김성민	2/5	20,000
	손경옥	2/23	10,000
혜정사	무명씨	2/17	10,000
화음사	강순란	2/3	10,000
흥국사	지정	2/13	20,000
사원명무기재	이형근	1/29	10,000
	김갑선	2/23	10,000

1월26일부터 2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한 기여입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정진의 위력 “하면된다”



▲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심지장 전수의 손녀 최수진양

지난 11월 13일 2014년도 수능능력 시험에 응시한 대학입시생이 다섯 명이나 되었다.

선립사 전수 심지장은 이 학생들이 크나큰 희망을 걸고 3년간 밤을 지새우며 명예를 걸고 공부에 열중하는 것을 보고 저는 1000일 불공, 49일 불공, 마지막 11월 월초 불공할 때 하루 일곱 시간을 철일 간 꼬박 불공을 하였다.

시험이 있는 날에는 시험 시작과 동시에 11시간 정진불공을 마쳤다.

시험결과를 간절히 기다리는 중에 선립사 김춘자 보살님 외손녀 최다민

양이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 너무 감격했고, 또 선립사 심지장 전수의 손녀 최수진은 육군사관학교 합격 통보를 받아 너무 감격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명문대학에 각각 합격했다. 이는 참으로 신비한 부처님의 가지력과 조상님들의 보살림이 아닌가 한다. 내 생애 이러한 감격은 처음있는 크나큰 기쁨이었다.

그리고 저는 2015년 2월 16일 손녀의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에 참석했는데 사관학교 운동장에는 1, 2, 3, 4학년 학생들이 큰 운동장을 가득 채운 채

각자의 희망을 꿈꾸면서 서있었다.

몸과 마음을 한데 모아 훈련을 마치고 바른 자세로 지휘관의 구령에 맞춰 부모님 등이 모인 앞에서 조금도 흐트러짐 없었다. 질서 정연하게 행사를 할 때, 자랑스런 생도들의 모습에 하늘도 땅도 감동해서 이슬비가 꽃비처럼 내렸다.

임관식이 시작되자 호국의 간성이자 희망의 약속인 사관생도들을 위한 군악대 음악 소리가 천지를 울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 천명의 사람들은 나라와 겨레를 사랑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입학식이 성대하게 거행됐다.

너무도 자랑스런 사관생도들!

부모님들은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사관 생도가 된 아들, 딸에게 꽃 화환을 목에 걸어주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조국을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기를 서원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마니 반메훬.
오마니 반메훬.
오마니 반메훬.

이글은 선립사 주교 심지장 전수님의 글을 통신원들이 취재하여 쓴 글입니다.
포항=수계사 통신원 정미혜, 이미애, 김금주

소통과 화합하는 합창단 연합회가 되기를

23일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단장들 정각사 신년인사



▲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정각사 신년 인사

부산불교연합합창단 단장들이 사내 주요 사찰을 방문하여 주지스님과 각 사원 임원들에게 신년 인사를 드렸다.

2월 23일 월요일 오후 2시 정각사를 방문한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조옥자 회장을 비롯한 각 사찰 합창단 단장들은 정각사

주교 법상인 전수와 해광 정사님께 신년 인사드렸다. 법상인 전수와 해광 정사는 “부산불교합창단을 이끄시느라 노고가 많은 조옥자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불교계도 함께 발표회도 하고 연습도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좋겠다”며 합창단이 법음 흥포에 앞장서 주기를 서원했다. 또한 총지중에 대해 간단한 설명도 덧붙였다.

부산불교연합합창단은 해마다 각 단장들 함께 동참하여, 각 사찰을 다니며 큰스님들의 법문도 듣고 한해 함께 할 행사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번 신년 인사에서도 많은것을 배우며 25일 회합했다.

정각사통신원=김정애, 한미옥, 이상록, 김윤경

제45회 동해중 졸업식 봉행 당당한 동해인으로 성장하기를



▲ 제45회 동해중학교 졸업식

총기44년 종립 동해중학교 졸업식이 2월 12일 오전 10시30분이 해오름관에서 봉행되었다.

졸업식에는 총지중 종립 관음학사 이사장 지성 정사, 인선 총무부장 등 학부모 내빈 약 500여명이 참석하여,

3년간의 중학교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탁상달 교장 선생님은 회고사를 통해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은 동해중 학교 3년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

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자랑스런 동해인으로서 긍지를 키워 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사장 지성정사는 축사를 통해 “졸업은 끝남과 동시에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화, 개방화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온 세계를 무대로 하여 개인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 IT, 지식, 정보화 시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과 자세를 기를 때입니다.”며 정보화 시대의 주역이 될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3학년 2반 한유정 군이 영광을 차지했다. 동해중학교는 이날 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총 17,508명의 동문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동해중학교=김재근 교감 선생님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 불교텔레비전(btn) “천안통” 출연



총지중 법경 정사(밀교연구소장, 사진)가 2월 27일 불교텔레비전에서 강연을 했다. 강연 프로그램은 “세상을 보는 눈, 천안통”이다. ‘불교와 함께 라서 즐거운 토크 콘서트’를 모토로 하고 있는 천안통은 불교텔레비 전의 대표적인 토크 프로그램이다. 프로 그램에 출연한 법경 정사는 1, 2부로 나누어 3시간 가량 강연을 했다.

1부는 ‘잘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 생활 가운데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강연했고, 2부는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주제로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괴로움의 속성, 인생은 즐거운 것인가 괴로운 것인가, 괴로움은 어디에서 일어나며 과연 없어 지는가, 괴로움을 이기는 생활 속 실천법 등을 강연했다. 강연 후 방청객들의 질문과 함께 법경 정사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다.

방송예정일은 1부가 3월18일(수) 오후12시30분과 오후 9시, 3월22일(일) 오전 7시30분이다. 2부는 3월25일(수) 오후12시30분과 오후 9시, 3월29일(일) 오전7시30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인터넷 충지정보 www.chongjinews.com

불교총지중 교도복지시설 희락원 입소안내



불교총지중이 교도들의 평생복지를 실현하고자, 새로 운영하는 성남 교도복지시설 희락원이 준공 되었습니다. 편안한 환경에서 신행생활과 함께 노후를 보내실 총지중 교도들의 입주를 기다립니다. 서울·경인 교도들 중 65세 이상으로 ‘오세대제도’를 성만 하신 분과 입교20년 이상인 총지중 교도는 우선적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총지중 시회복지재단의 내부 심사에 통과 하여야 합니다.)

- 교도복지시설: 성남 법천사 내, 3층 총 15실
- 입소인원 : 1인 1실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부부는 1실 2인 입주가능)
- 편의시설: 공동세탁실, 공동목욕탕, 공동취사시설 및 1일 3식 제공
- *매월 소정의 공양 준비금은 따로 납부합니다.

문의 각 사원 주교 및 총지중 통리원 전화) 02)-552-1080



▲ 개별화장실



▲ 공동목실



▲ 공동주방



▲ 생활공간

불교의 선정 37

미얀마의 사념처 수행



화령 정사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미얀마의 위빠싸나 수행법2

입선(立禪)과 와선(臥禪)

걸으면서 하는 수행인 경행(行禪)을 시작하기 전이나 경행을 하다가 벽이나 장애물에 막혔을 때는 잠깐 동안 서 있게 된다. 그럴 때는 그냥 멈춰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의 대상을 몸의 느낌에서 마음의 느낌으로 확장한다. 서 있을 때는 발바닥의 감촉을 주시하고 가다가 멈추려고 할 때는 먼저 멈추려는 의도를 알아차린다. 그런 다음 멈추려는 동작과 주시를 일치시킨다. 즉, 멈추려고 할 때는 '멈추려고 함'이라고 알아차리고 멈추었을 때는 '멈춤'이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리고는 온 몸을 스캔 하듯이 발끝에서 머리 끝을 주시하며 훑어 올라가나 내린다. 이때 어떤 특정한 부위의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오면 그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주시해도 된다. 그렇지만 행선을 하다가 멈추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온 몸을 훑으며 주시하는 것이 좋다. 경행을 지속하기 위해 몸을 돌리려고 할 때는 '몸을 돌리려고 함'이라고 주시하고 몸을 돌릴 때는 '몸을 돌림'이라고 주시한다. 다시 앞으로 걸어나가려고 할 때는 '걸어나가려고 함'이라고 주시하면서 의도와 동작을 일치시킨다.

서서 하는 수행인 입선은 주로 행선과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행할 수는 없다. 단지 졸음이 강하게 밀려오거나 몸이 심하게 찌부듯 할 때는 효과적이다. 서 있을 때는 양 발을 약간 벌려서 안정적인 자세를 잡을 수 있고 피로도 도 경감시킨다.

누워서 하는 수행은 와선이라고 한다. 수행은 앉아있거나 걸거나 서 있을 때 뿐만 아니라 눕거나 잠자리에 들 때도 계속한다. 눕는 자세는 이른바 사자좌라고 하여 오른쪽 옆구리를 바닥에 대고 누는 것인데 등을 바닥에 대고 천정을 바라보고 반듯이 누워도 된다. 사자좌를 취하게 되면 심장이 높게 되는 부담을 덜어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약몽도 꾸지 않게 된다고 한다. 누워 있을 때에도 당연히 주시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이 흐릿해지는 이른바 혼침(昏沈)에 빠지게 된다. 누울 때에도 '누우려고 함'이라고 의도를 알아차리고 누우며 천천히 누우면서 모든 동작과 느낌을 놓치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 몸을 완전히 눕혀 움직임을 고요해지면 다시 배의 일어나고 들어감을 주시한다. 잠자리에 누웠어도 바로 잠들지 말고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세밀한 주시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피로가 더 빨리 풀리고 몸이 가벼워진다.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일어남'이라고 주시하고 몸을 일으키며 모든 동작과 현상을 주시하면서 몸을 움직인다.

수행자가 지치거나 좌선, 경행 등을 하면서 큰 진전이 없을 때는 누워서 배의 들어가고 나옴을 주시하면서 정신을 집중시키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도 있지만 초보자가 누워서 하는 수행을 자주하는 것은 혼침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좌선과 행선

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수행에 있어 굳이 와선을 포함하는 것은 24시간 모두를 수행과 결부시키기 위해서이다.

생활선-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미얀마의 위빠싸나 수행은 일상 생활 가운데에서의 정념 수행을 중시한다. 수행자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들 때까지 항상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주시하고 알아차리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에게 있어서 잠자는 시간이 유일한 휴식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행·주·좌·와를 포함한 모든 기거 동작에서 주시와 알아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된다

차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수행자는 일상 생활상의 모든 활동과 느낌에 대하여 주의를 다 기울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현저한 현상부터 주시하여 점차 더 넓은 범위로 주시를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처음에는 좌선을 통하여 단지 복부의 일어나고 들어감을 주시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행선, 입선, 와선을 거쳐 밥 먹고 용변 보며 옷 입고 청소하는 모든 동작과 자세를 주시하며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마음은 더 안정되고 알아차림은 점점 민감해 지면서 자신이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신을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근저럽다고 느끼면 곧 그 부위에 주의를 돌리면서 그 '근저러움'을 주시한다. 이때 우리는 굶고 싶어하는데 그때는 '굶고 싶다'라는 생각을 주시한다. 손을 들어 굶으려고 할 때는 '손을 든다'라는 동작을 주시하고 굶을 때는 손이 근저러운 부분과 접촉하는 것을 주시한다. 손을 거두어들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의 의도와 동작을 주시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행자는 마치 노인이나 환자처럼 느리게 움직여지게 되면서, 모든 동작과 느낌에 대해 주시하는 힘이 길러진다. 빠르게 움직이다 보면 주시의 대상을 놓치게 되기 쉽기 때문이다. 《대념처경》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때도 물러설 때도 앞을 볼 때도 주위를 볼 때도 팔다리를 구부리고 밥을 먹고 옷을 입을 때도 언제나 의도를 주시하면서 분명한 앎을 지닐 것을 비구들에게 훈계하고 계신다. 이렇게 하여 주시하고 알아차리는 능력이 일상 생활의 모든 것에 적용될 때에 선정력이 향상된다.

진정한 수행은 반드시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 24시간 모

두가 수행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어떤 스님들에게 요즘 뭐하시냐고 물어보면 수행하느라 바쁘다고 대답한다. 이런 분들은 일상 생활이 수행인 줄을 모르고 반드시 앉아있어야만 수행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이다. 위빠싸나 수행도 반드시 앉아있을 때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 중에서도 호흡을 주시하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하 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노력을 통하여 완성된다. 수행자는 몸과 마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하여 평가하거나 집착해서는 안된다. 그저 바라보면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다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시 호흡에 따라 배의 일어나고 들어감에 주의를 되돌린다. 마하시 센터의 방법

은 호흡에 다른 배의 기복을 주시하지만 정통 사념처 수행에서는 호흡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인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것, 즉 어떤 행위에 앞서 우리의 의도가 먼저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그저 자동적으로 행위를 하고 동작을 한다. 그러나 위빠싸나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하게 될 때에는 그러한 의도가 먼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을 일으키고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위빠싸나를 통하여 우리 자신이라고 믿는 그것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 먼저 있어 우리를 끌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관건이 된다.

의도의 알아차림과 그 효과

위빠싸나 수행이 진행됨에 따라 신체의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을 더욱 주시하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힘이 늘어난다. 마하시 센터의 수행법에서는 정념으로 의식을 관조하는 이외에도 특히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을 중시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일어설 때는 일어설 의도가 생긴다. 즉 '오래 앉아 있었으니 일어나야 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이런 것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서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가 정념을 지니고 마음을 주시하게 되면 일어설 때 '오래 앉아 있었으니 일어설'이라는 의도가 미리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오랫동안 서 있을 때에는'

이제 오래 서 있었으니까 앉아서 좀 쉬려는 의도가 먼저 생긴다. 우리도 자각하지 못하는 충동이 생겨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는 앉으려고 하는 것이다. 매일 우리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의도가 일어나기도 하고 주의하지 않는 사이에 사라지기도 한다. 만약 우리가 정념으로 모든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면 다음에 일어나는 동작에도 정념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정념으로써 뚜렷한 의도를 알아차릴 때 이러한 의도는 모두 행·주·좌·와의 네 가지 위(威儀)와 관련이 있으며 그러한 의도의 알아차림을 일상생활의 모든 동작과 태도에 반영하여 넓혀나갈 수 있다. 의도의 알아차림을 지속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음을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우리를 컨트롤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념이 없이 사전에 동작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모든 것을 충동적으로 하는 것이 되며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충동적인 범죄라고 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 마음을 살피는 훈련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자기의 의도를 먼저 알아차리고 자제했을 것이다. 위빠싸나의 수행은 이런 큰 범죄는 물론이고 우리가 일상 생활상에서 저지르게 되는 많은 행위들을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절해 줄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남에게 불쾌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여 스스로 후회를 한다. 그런 것들은 어떤 언동을 할 때에 사전에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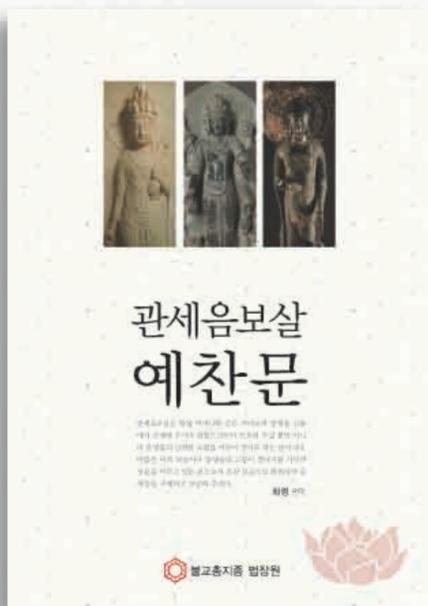
평상시 정념의 훈련이 되지 않아 자신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나(我)'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것이다. '나', '나의 것'이라는 집착이 강한 사람은 강렬한 자아의식으로 인하여 자기의 주관하에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위빠싸나 수행을 통하여 의도를 살피게 되면 '나'라는 것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튀어나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구경》에서도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드는 근본이라고 한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끌고루 건져주시네”



화령 편역 | 불교총지중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사랑이 아니라면 그 무엇을 바꿀 수 있으랴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 붙는다. 부부 사이나 부모 자식에서도 제 눈에 들면 잘한다고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들면 싫다고 마음의 화살을 날린다. 남남끼리는 말할 나위도 없다. 제 마음에 드는 정도에 따라 말씨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거칠어지기도 한다. 별걱 화를 내는 것도 다반사다. 누군가 듣기 좋은 말로 속삭여 주면 좋아하고, 잘못을 지적해 주면 금방 싫은 마음을 낸다.

인간의 사랑에는 조건이 따라붙지만 불보살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 불보살의 사랑은 워낙 크고 넓어서 대자대비요, 일체 만물을 한 몸으로 보기에 동체대비이다.

인간끼리의 사랑 중에서도 그나마 조건이 따라 붙지 않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자식을 탓하지 않고 오로지 인내하며, 묵숨조차 아끼지 않는다.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리 얼어붙은 가슴이라도 봄바람처럼 녹게 한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기에 세상은 그나마 견딜 만한 곳이 된다.

모정을 닮은 사랑이 있는 곳에는 위안과 평화

가 있고, 삶에 대한 충족감이 있다. 그런 사랑이 있는 곳에는 미움이나 적의가 발을 붙일 수 없다. 억압과 공격, 학대와 부정 따위가 따르지 않는다. 비방이나 질시도 설 자리가 없다. 아나,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쌍인 눈이 봄볕에 녹아내리듯이 그렇게 녹아내린다.

사랑이 사랑다우려면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 조건을 붙이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을 주어야 한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그도 사랑을 주지 않는다. 내가 지극하게, 사무치도록 사랑을 주면 그도 내게 사랑으로 화답한다. 화초조차도 정성과 사랑을 받고 자라는 화초가 윤기 나게 아름답다. 사랑은 자식과도 같다.

사랑의 큰 나무 아래에는 사람이 모여든다. 누구라고 감싸고 안아 들어주는 큰 사랑 앞에서는 부조리와 모순과 갈등이 설 자리가 없다. 사랑이 많은 사람의 인생은 자식과 자식이 감응하듯이, 물과 우유가 잘 뒤섞이듯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이 서로 응하고 화하여 모든 일이 걸림 없이 이루어진다.

물질에 치우치고 자기중심주의에 치우치는 삶이 당연시되고, 아낌없이 주는 삶, 누구라도 감싸는 삶은 오히려 풍수 취급을 당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풍속도다. 하지만 생각해 보라.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삶에는 불안이나 근심 걱정이 자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늘 스트레스와 고통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다닌다. 거기에는 만족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경전 말씀에 따르면, 사랑을 베푸는 데에는 열한 가지 복이 따른다고 한다. 사랑은 해탈로 이끄는 바라밀다 수행의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만족과 안녕의 길을 버리고 불만과 고통의 길을 택하는 것인가? 남김없이 베푸는 어머니의 사랑을 타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자식의 이익과 행복을 자신의 이익과 행복으로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자아이익은 자식의 영역에까지 확장되어, 자식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고 자식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다.

부모 자식 사이처럼 너와 나라는 경계선이 없을수록 큰 사랑이고, 큰 사랑이다. 울타리가 넓어지는 것에 비례하여 경쟁하거나 다툴 상대가 줄어든다. 너와 내가 하나라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는, 다투고 긴장할 까닭이 없다. 내가 너이고 네가 나인데 다툴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인류 전체로 확대된 것이 부처님의 사랑이다.

이익을 다투는 일에는 끝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면 먼저 사랑을 내야 한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도 정확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 상대도 바꾸지 못할뿐더러 자기 자신 역시 바꾸지 못한다.

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 이익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복될 수 있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풀 한 포기까지도 자신의 몸뚱이처럼 여긴다. 거대한 섭리의 손바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무어란 말인가.

글: 김시행 (전 언론인)



입은 화근(禍根)의 근원(根源)



부처님이 그러도 더러운 벌레를 보고 슬퍼한 이유를 알고자 “세존이시여 이 먼저 왕 사성 밖 변소에 빠진 벌레를 보셨는데 도대체 그 벌레는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기에 r,와 같이 더러운 곳에 있습니까? 또 그 벌레는 언제부터 그곳에 살고 있으며, 어느 때 그와 같은 고통을 면할 수 있습니까?” 여

이 살았는데 그는 마음이 착해서 절을 세우고 많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 그리고 시주 집에서도 많은 유제품 공양이 있었다. 당시 많은 객승들이 이절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절의 원주(절의 살림을 맡아하는 스님)스님이 생각하기를 “모처럼 시주 집에서 공양을 받은 것인데 쓸데없는 자들이 와서

님은 “당신네들은 것은 객승들이고 우리들은 이 절에서 오랜 세월 살아온 주인이다. 당신네들 헛 병아리에게는 줄 수 없다.”며 말했다. 객승들은 “유제품은 시주집의 공양 아닙니까? 현재 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다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객승들의 책망을 받아 유나 스님은 화

년의 긴 세월, 그는 변소의 물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단 한번 욕설을 한 것만으로 이와 같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우리제자들이 입은 화근의 근원이며, 몸을 태우는 맹화라는 사실을 잘 알고 깊이 삼가고, 부모형제와 여러 사람들에게 항상 상냥한 언사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함께 왕사성 밖에 탁발을 나갔을 때 일이다. 거기에는 선내 사람들이 대. 소변을 버리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어 빛물과 오수가 가득차 있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사람의 형태를 닮고 수족이 많이 달린 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 부처님이 오

는 것을 보고 수중에서 머리를 들고는 눈에는 눈물을 가득 담고 쳐다보는 것이었다. 부처님은 이 광경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아난은 알아차렸다.

부처님이 영취산으로 돌아가서 아난이 올린 방식에 앉아 명상에 들었다. 아난은

쭈었다. 부처님이 대답하시기를 “아난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듣는 것이 좋겠다. 그 벌레의 가업은 인연을 말해 조갯노라.”라고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 옛날 부처님이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교화하고 입멸한 후의 일이다. 바람은 한사람

먹어 없앨 것이므로 먹지 말고 숨겨두지”라고 생각하고, 그 유제품을 감추어두고 객승들의 식탁에 올리지 않았다. 객승들은 이미 시주로부터 공양이 들어왔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유나 스님을 책망했다. “당신은 왜 유제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하고 객승들이 반발하자, 유나 스

를 내내고 마침내는 자제력을 잃고 입에 담자 못할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변소 물을 마시는 게 좋을 것이다. 유제품을 주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하신 부처님은 “욕설을 마구한 악의 보답으로, 그로부터 몇 백 몇 천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고 좌중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감탄하고, 각자 함참하여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물러났다. 우리 불자들은 쓸데없이 욕심을 내고, 잠시나마 욕을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자.

대방편보살은경 제3 (大方便佛報恩經第三)

입은 화근의 근원이며 몸을 태우는 맹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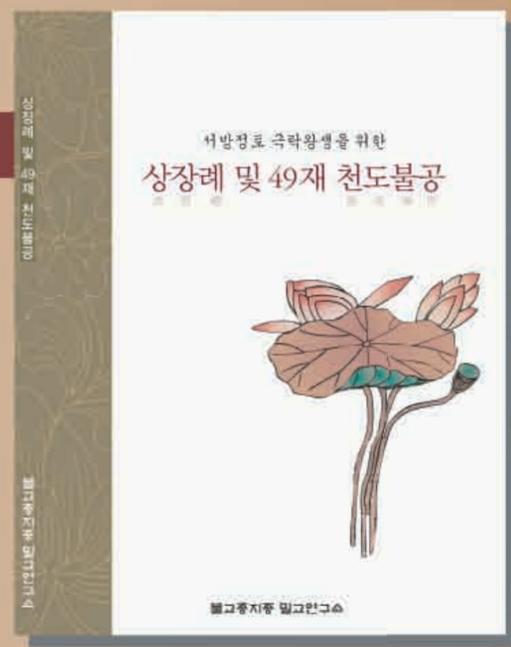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 재(齋)란 무엇인가?
-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 49재를 행하는 이유
-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증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발행 / 비매품 /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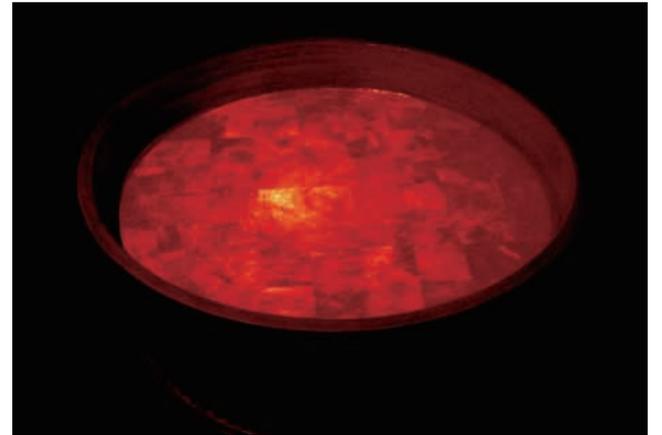
‘비디오아트로 피어난 만다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고 박현기 회고전 6월 25일까지 현대문명의 테두리에 불교 사상 담아



▲ 1987 '무제' (비디오 돌탑)



▲ 비디오 돌탑 등 전시 설치 장면(사진 박명래)



▲ 1997 'A Footage of Mandara' (프린트)

남쪽에서는 매화가 꽃망울을 틔우며 봄의 소리를 전해온다. 매화 꽃망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정갈함에 마음까지도 정화되는 기분이다. 중생의 아픔을 이루만져주는 정갈한 백의관음상을 보는 기분일까.

활짝 핀 매화 한 송이를 들여다볼 때면 같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 만다라다. 화려한 꽃처럼 중앙에서부터 펼쳐지는 대칭형 세계가 떠오른다. 활짝 핀 매화 송이처럼 화사한 만다라의 세계.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만다라 하나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닐까?

꽃을 보며 만다라를 떠올리는 이유를 생각해왔다. 좌우대칭 사방 고르게 퍼져나가는 삼라만상의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자연을 닮아있는지도 모른다. 자연 그 자체가 이미 최상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나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법을 말씀하셨다. 만다라에 녹아있는 세상 역시 나와 내가 둘이 아닌 세상이다. 그렇기에 더 완벽하고 그렇기에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만다라의 세계이다.

만다라는 범어로 Mandala라고 한다. 만다라는 '진수' 또는 '본질'이라는 뜻이다. 본래 의미는 본질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하게 된다는 것인데, 부처님이 법신 화신 보신으로 그 모습을 나누시는 것처럼 만다라 역시 본질은 하나이지만 조건에 따라 여러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 흔히 접하는 만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불화이다.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펼쳐진 불교사상과 신앙뿐만 아니라 인도 재래의 신들까지 수용하면서 그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그 원리를 만다라의 형태로 표현했다.

만다라는 밀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밀교는 사회 구제를 표방하며 이전의 불교가 용인하지 않았던 재래신앙의 요소를 불교적으로 수용했다. 거기에 새로운 사상체계까지 탄탄하게 갖춘 밀교는 보다 많은 보살을 출현시키고 인도 재래의 신들까지 포용했다. 때문에 만다라는 관념적인 밀교 미술품인 동시에 밀교의 이론을 체계화하여 설명한 핵심이기도 하다.

봄꽃에서 연상한 만다라에 대한 설명이 길어졌지만 이번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만다라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 소식이다. 그것도 전통 만다라가 아닌 현대적으로 해석한 새로운 만다라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은 오는 6월 25일까지 기획전 '박현기 1942-2000 만다라'전을 연다. 이미 고인이 된 박현기 작가는 비디오 아티스트다. 불교미술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박 작가는 비디오라는 현대적인 매개체에 불교사상을 담아냈다.

비디오 아티스트 하면 백남준 선생을 으레 떠올리지만 박현기 작가는 국내 첫 비디오 아티스트로, 국내에서 비디오를 본격 예술로 도입했던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였던 백남준 선생이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1984년 즈음이었던 것에 반해, 박 작가는 이미 1970년대 말 국내 미술계에서 영상 매체를 작품에 활용한 독특한 비디오 작업으로 두각을 드러냈으니 국내에서 선구자이자 첫 비디오 아티스트는 박현기 작가라는 것에 이견은 없다. 1990년대 한국에서도 비디오 아트에 대한 열풍이 일어나면서 박 작가의 활동은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7년 이후 '만다라' 시리즈, '현현(顯現)' 시리즈 등 불교를 비롯한 동양사상을 담아낸 대표작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내 비디오아트의 선구자로 각광받으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 갑작스럽게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2000년 1월 숨을 거두었다.

58세.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이번 생에 부여받은 고 박현기 작가. 그가 생전에 남긴 작품은 2만여 점에 달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유가족에게서 작품과 자료 2만여 점을 기증받아 2년에 걸쳐 정리했다. 이번 그의 회고전은 방대한 그의 작품들이 처음으로 정리가 완료되어 공개되는 전시이기에 더욱 특별하다.

전시장 입구에는 대형포스터와 함께 박 작가의 마지막 작업이었던 만다라가 영상으로 비춰진다. 전시장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 들어선 기분을 선사한다.

1965년 학창시절 메모부터 2000년 임종 직전의 스케치까지 35년간 그의 인생과 예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연대별로 전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아 있는 그의 작품들을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토대로 그의 주요 작품을 재현해 냄으로써, 국내 첫 비디오 아티스트 박현기의 '거의 모든 것'을 전시에 담아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작가의 작품이 특별한 까닭은 당시 가장 현대적이고 새로운 매체인 비디오를 전통의 사고 위에 보여줬다는 점이다. 초기 작업들은 돌과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차곡차곡 쌓인 돌탑 사이로 들어앉은 모니터. 모니터 안에서는 돌 사진을 보여준다. 그 자체로 이미 돌탑을 형상화 해낸 것이다. 그냥 돌도, 모니터 속 돌도 어떤 형태를 했나 만이 다를 뿐. 정확하게 불이(不二)의 세계를 구현해 낸다. 1980년대 박현기가 발표한 비디오 돌탑 시리즈를 모티브로 재구성한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작가는 어린 시절 6·25전쟁 피란길에 경험한 돌탑 쌓기의 기억을 미디어 작품 주제로 끌어들이었다고 한다.

이번 기획전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만다라다. 도서관처럼 구현된 전시장 자체는 거대한 원을 그리고 있어 전시장 자체가 커다란 만다라를 연상케 한다.

불계 표현된 박 작가의 만다라는 1997년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 뉴욕 김포스터갤러리(Kim Foster Gallery)에서 열린 전시에 출품된 작품이다. 티베트 불교에서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만다라의 형상이 붉은 색의 의례용 헌화대 위에 투사된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다.

박 작가의 만다라 영상은 얼핏 보면 완벽한 기하학적 도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포르노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가장 세속적인 욕망의 단편들을 모아 가장 성스러운 만다라를 만들어낸 것이다. 만다라를 정립한 인도 밀교가 8세기 이후 성력(性力)을 중시하는 탄트라로 이어진 것을 담아낸 것일지도 모른다. 성(聖)과 속(俗)의 모호한 경계, 아니 성과 속이 따로 있지 않다는 성속일여(聖俗一如)의 사상을 박 작가는 이렇게 표현해냈다. 이 또한 불이와 무엇이 다를까.

박 작가는 20대 때 전통문화 공부에 매진하면서 자신이 영상 미디어로 이미지를 전하는 본질을 먼저 찾고자 했다. 이번 전시 아카이브에서 보여주는 그의 작품 스케치와 메모들에서도 그의 작품에 녹아든 불교사상이 오롯이 드러난다.

특히 만다라 작품에 대한 스케치와 내용을 담은 메모가 눈길을 끈다. 네모난 공간 피라미드처럼 구상한 만다라는 '유아독존의 순간, 유아독존의 공간, 유아독존의 계, 천상, 운상, 수상, 지상, 환상, 영상, 천상은 항공여행 중 공중 촬영한 이미지를, 수상은 파도 동영상 등이 비치는 명상적 구도를 주 컨셉으로 설정하겠다'는 설명이 달려있다.

불교 사상을 고스란히 녹여낸 박 작가의 비디오 아트의 세계. 거대한 도서관을 마주한 것 같은 전시관을 거닐다 보면 "같은 시기 활동한 백남준만큼 화려한 명성은 얻지 못했지만, 박현기는 서구 미디어 기술에 동양 사상을 녹여내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다"는 미술관 측의 설명을 체감할 수 있다.

구성작가 강지연



▲ 1997 '만다라' 전시 설치(사진 박명래)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일원 어린이집










· 맑고 밝은 어린이 · 자율적이며 더불어 함께 크는 어린이
·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어린이 · 이웃, 나라, 자연을 사랑하는 어린이

일원어린이집 : 강남구 광평로 3길 21 ☎ 02.495-3221



건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초록반 어린이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강남구립초록어린이집
상남구 원동로 590길 63 리엔파크 5단지 아파트 판리동 1층
문의: 02-445-2326

만다라를 이용한 청소년 정서 파악과 치료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불교문예연구』 제4호 발간

동방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장 차차석 박사는 연구 소 정기 학술지 불교문예연구 제4집을 발간하였다. 이번호는 최근 한국의 트렌드 중의 하나이자 대중적인 관심을 끌고있는 상담심리를 중심으로 논문들을 엮었다. 무로론 불교적인 시각에서

는 상담심리를 포포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불교를 상담심리학에 수용한 것은 서양의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 연구자들 이었다. 그런 현상이 역수입되어 현재는 많은 학자들이 불교와 상담심리학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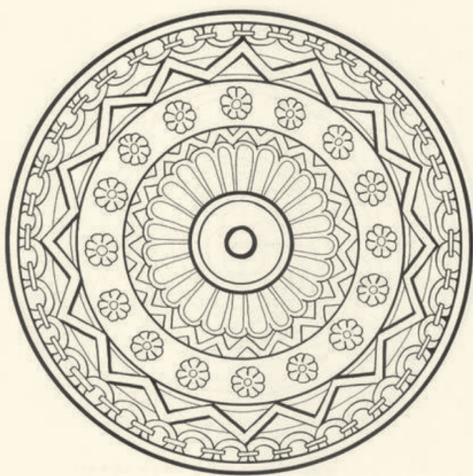
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호는 우리 사회 청소년의 아픔과 문제를 불교적인 상담심리학에 입각해 연구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실었다. 그중 전현주 선생(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의 “만다라의 도형심리를 통

한 청소년의 정서도식에 관한 고찰” 과 서신자 교수(목포대학교 외래교수)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에 대한 고찰” 을 요약 게재한다.

“만다라의 도형심리를 통한 청소년의 정서도식에 관한 고찰”

전현주(동방대학원대학교 박사과정)



▲ 청소년들의 심리 파악에 활용되는 만다라 문양

만다라의 도형심리는 현재에 대한 마음속 이미지화이다. 즉 도형을 통한 기질적 특성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지만 청소년이 현재 상황을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정서 함양을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 할 수 있다. 화해와 피난처를 제공하는 대인관계기술에서 조화롭게 대처하려는 인식으로서 정서를 도식화 한다

는 면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상담활동이라 생각된다. 또한 만다라 도형심리를 통한 상담은 불안정기의 청소년들이 겪는 미래의 현실 속에서 자족, 포래, 학업적 인 기술 수행 능력 등의 갈등 해소와 상호 소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만다라 도형은 개인특성을 상징적으로 표현 하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이야기하게 함

으로서 치료적 효과를 도모한다. 이것은 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깨달는 과정이며 건강한 정서 표현으로 도식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청소년들의 상담과정에서 만다라도형의 상징을 통해 자기실현에 대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하며, 불안과 우울의 부정적 정서와 미래 목표의 달성이라는 행복한 정서에 대한 양가감정을 인정하게 한다. 청소년은 현재의 문제와 갈등상황에 대해 받아들이므로써 마음 다스리기 훈련하고, 사회적 대인관계에서는 자기 효능감을 발휘하게 한다. 만다라 도형심리를 통한 상담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안정적인 반응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하고 상징 이야기로 치료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만다라 도형상징과 색채심리로 표현된 자신의 부정적 정서와 긍정적 정서를 통해 사회적 대인관계와 정서적 표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다루었다. 청소년이 선택한 만다라 도형상징 표현을 통해 현재의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효과적인 자기실현의 조절과 상황에 대해 수용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진로 목표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정서적인 자정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면 상담의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조절에 대한 고찰”

서신자(목포대학교 외래교수)



▲ 스마트폰에 열중하는 청소년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과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한 자기 조절이 어떠한지 밝히고자 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발달을 저해하고 또래관계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와 상관성이 높아 중독의 문제가 시급해해서 해결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중독의 문제는 청소년의 습관이 타성적인 자동조절상태의 문제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

다. 마음챙김은 매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행동,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수행법으로, 스스로를 조절하게 돕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찰함으로써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절할 수 있다.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마음챙김 수행법으로는 호흡을 관찰하여 '지금-여기'에 집중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호흡명상과 걷고 있는 순간순간을 마음챙김하고 집중하는 걷기명상 등

자기조절수행법을 들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의 문제는 대체적으로 자기조절의 실패에서 조망될 수 있다. 마음 챙김 명상은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인한 내성, 일상생활 장애, 가상세계 지향 및 스마트폰 사용 중지로 인해 나타나는 금단과 같은 중독의 특성을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하여 자기 조절을 시도해 본다면 그 효과는 크리라 생각 한다.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바라밀 공부방 청소년들의 활기찬 심터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동 8-8 ☎ (051)552-0705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13)

태장계만다라의 세 번째 궁실(宮室), 『연화부원(蓮華部院)』의 제존(諸尊)

지난호에서는 태장계만다라의 12대원(大院) 가운데 두 번째 궁실(宮室)인 '변지원(遍知院)'의 존상(尊像)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지원은 중대팔업원의 왼쪽에 있는 궁실로서 대일여래가 갖추고 있는 지혜의 덕(德)을 나타낸다.

이번호에서 살펴볼 내용은 태장계만다라의 세 번째 궁실인 연화부원(蓮華部院)이다. 연화부원은 중대팔업원의 왼쪽에 있는 궁실이며, 관음원(觀音院)이라 부르기도 한다. 관자재보살 계통의 제존(諸尊)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관음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관자재보살은 연화(蓮華)와 뿔 수 없는 관계다. 연화(蓮華)는 바로 관자재보살의 대표적인 지물(持物)이기 때문이다. 연화부원을 관음원이라 부르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연화부원(蓮華部院)과 관음원(觀音院)은 동일한 의미다. 태장계만다라에서 불보살의 세계는 크게 3부류가 있는데, 불부(佛部)와 연화부(蓮華部), 금강부(金剛部)이다. 이 3부(佛部, 蓮華部, 金剛部) 가운데 관자재보살이 연화부에 속하므로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 이름하였고, 이 연화부원에 관자재보살과 관련 있는 보살과 제존(諸尊)들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관음원(觀音院)이라 하였다.

관음원(연화부원)은 부처님의 대자비(大慈悲)를 드러내고 있다. 대일여래의 깨달음이 연화부원에서 자비(慈悲)로 전개된 것이다. 자비와 깨달음은 연꽃으로 상징되며, 이를 꽃피우게 하는 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은 다양한 연꽃을 들고 있는데, 완전히 핀 연꽃을 들고 있기도 하고 滿開, 開敷, 덜 핀 연꽃을 들고도 하며 半開,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을 들고도 한다 未敷, 未開敷. 무명중생의 근기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누시는 보살이다. 그래서 연화부원에는 다양한 관음상(觀音像)이 그려져 있다. 대일여래의 자비를 여러 모습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연화부원의 구조는 <그림1>과 같다. 여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부분 관자재보살 계통의 보살과 존상(尊像)들이 등장한다. 성관자재보살, 연화부발생보살, 대세지보살, 비구지보살, 다라보살, 대명백신보살, 마두관음보살, 대수구보살, 솔도파대길상보살, 아룬타라보살, 여의륜보살, 대길상대명보살, 대길상명보살, 적유명보살, 피엠피보살, 백신관자재보살, 풍채보살, 불공견색관세음보살, 수길상보살, 대길상변보살, 백처존보살이 관음상(觀音像)이고, 다라사자, 봉교사자, 연화군다리, 만공양, 아홉 분의 연화부사자, 보공양, 분향보살, 도향보살이 연화부의 존상(諸尊)들이다. 모두 37존이다.

- 26. 아룬타라보살
- 27. 여의륜보살
- 28. 대길상대명보살
- 29. 대길상명보살
- 30. 적유명보살
- 31. 피엠피보살
- 32. 백신관자재보살
- 33. 풍채보살
- 34. 불공견색관세음보살
- 35. 수길상보살
- 45. 연화부사자
- 46. 연화부사자
- 47. 보공양
- 48. 분향보살
- 49. 연화부사자
- 50. 연화부사자
- 51. 연화부사자
- 52. 도향보살
- 53. 연화부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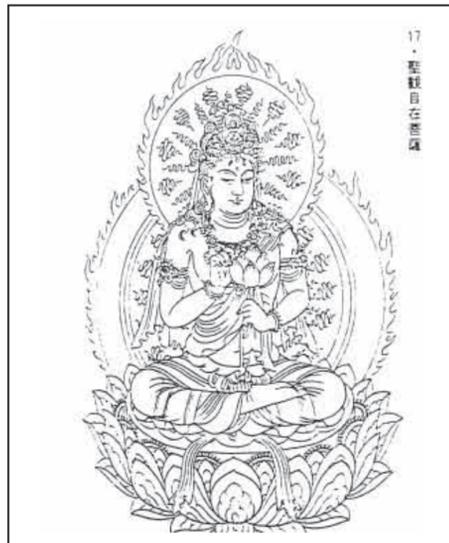
연화부원의 주존(主尊)은 성관자재보살이다. 성관자재보살은 육관음(六觀音)의 변화관음보살 가운데 한 분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중생을 자유자재로 구제하는 보살이다. <그림2>의 존상이 성관자재보살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음보살 계통의 보살답게 연꽃을 들고 있다. 이 보살을 필두로 20분의 변화관음존(變化觀音尊)이 중대팔업원을 향하여 세 겹으로 배열해 있다.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보살(18번)이 연화부발생보살이다. <그림3>은 연화부발생보살의 존상이다. 이 보살은 연화부원의 모든 본존들의 발생(發生)을 주관한다. 그런데 이 보살은 『대일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불공견색경』에 나온다. 이를 현도만다라(現圖曼荼羅)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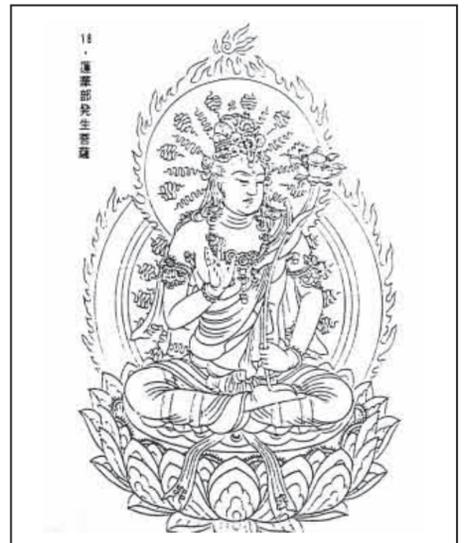
연화부발생보살 아래에는 대세지보살이 있다. 이 보살은 관세음보살과 함께 아미타여래의 협시로 모셔진다. 밀교에서는 아미타삼존불로서 지장보살 대신에 대세지보살을 협시로 삼고 있다. 대비(大悲)한 세력이 자재하게 활동하므로 대세지보살이라 한다. 대세지보살의 존상은 <그림4>와 같으며, 왼손에 반개(半開)한 연꽃을 들고 있다. 중생의 보리심을 나타내며 대세지보살의 자비력으로 중생을 완전한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세지보살 아래에는 비구지보살이 등장한다. 비구지는 눈썹 위의 주름이란 뜻이며, 관자재보살의 미간(眉間)의 주름에서 생긴 보살이므로 비구지란 이름이 붙었다. 이 보살 또한 중생을 대비(大悲)로써 제도한다. 특히 티벳에서는 아미타여래의 화신으로 여기고 있다. 비구지보살의 존상은 <그림5>와 같다. 네 개의 팔을 지니고 있으며, 첫 번째 오른손에 염주를 들고, 두 번째 손은 여원인(與願印)을 하고, 왼쪽의 첫 번째 손에 연화, 두 번째 손은 병(瓶)을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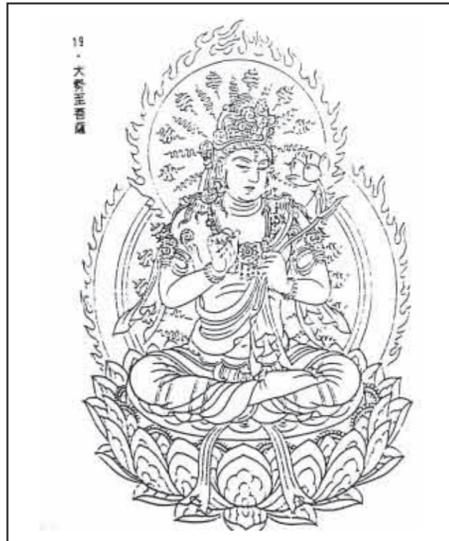
이 보살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연꽃을 들고 있다. 관음보살의 변화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연꽃은 대비(大悲)를 나타낸다. 이를 주관하는 부처가 바로 중대팔업원의 무량수여래, 즉 아미타불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 <그림2> 성관자재보살



▲ <그림3> 연화부발생보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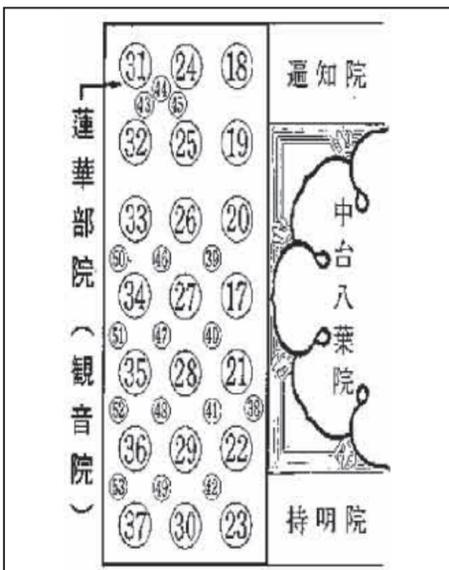
▲ <그림4> 대세지보살



▲ <그림5> 비구지보살

15존, 16존 등 다양하다. 『대일경』 「구연품」에서는 7존이 언급되어 있고, 『불공견색경』에서는 14존을 설하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금강수원(金剛手院)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그림1> 연화부원의 구조

- 17. 성관자재보살
- 18. 연화부발생보살
- 19. 대세지보살
- 20. 비구지보살
- 21. 다라보살
- 22. 대명백신보살
- 23. 마두관음보살
- 24. 대수구보살
- 25. 솔도파대길상보살
- 36. 대길상변보살
- 37. 백처존보살
- 38. 다라사자
- 39. 봉교사자
- 40. 연화군다리
- 41. 만공양
- 42. 연화부사자
- 43. 연화부사자
- 44. 연화부사자

대일여래의 깨달음이 연화부원에서 자비(慈悲)로 전개된 것이다. 자비와 깨달음은 연꽃으로 상징되며, 이를 꽃피우게 하는 분이 바로 관자재보살이다.

보관(寶冠)에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것이다. 관음보살의 화불(化佛)이 아미타불이며 아미타불의 분신(分身)은 관음보살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연화부원은 중대팔업원의 무량수여래가 펼치는 중생제도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연화부원의 제존(諸尊)에 의해 궁극적으로 무량수여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존(主尊)의 성관자재보살이 무량수여래를 화불(化佛)로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다.

20분의 관음보살 사이에 16존의 사자(使者)가 뒤따르고 있다. 다라사자 부터 연화부사자까지의 16존이다. 사자(使者)의 수는 경전마다 조금 다른데, 7존부터 14존,

이 사자(使者)들은 변화관음존의 시자(侍者) 역할을 한다. 일종의 심부름꾼이자 보좌역이다. 사자가 맡은 역할은 중생들의 선근(善根)을 성숙시켜 자비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자비의 덕(德)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제존(諸尊)의 대비(大悲)한 덕(德)에 의해 중생은 번뇌에 물들지 아니하고 본래 지니고 있는 정보리심(淨菩提心)을 드러내게 된다. 그것은 마치 진흙탕 물에 더럽혀지지 않고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화와도 같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화부원(蓮華部院)이라 한 것이다.

만다라에 등장하는 제존(諸尊)을 통해 큰 가르침을 배운다. 조화와 협력을 이루고, 배려하고 소통하려는 가르침이다.



▲ 태장계 현도만다라의 연화부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레바논 동명부대 방문

세계평화기원법회 봉행... 이슬람 지도자들과 전쟁 종식과 평화정착위해 노력하기로



▲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레바논 동명부대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레바논 UN평화유지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를 격려 방문했다. 3월 1일 세계평화기원 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이슬람 지도자들과 환담을 통해 전쟁 종식과 평화정착을 위해 종교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동명부대 군법당(호국 동명사)에서 장병들과 봉행한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레바논은 정치적 소용돌이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지만 종교 화합의 모습은 중동 어느 나라와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라도 곳곳에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다. 불자 장병들에게 “이웃을 소중한 인연으로서 마음까지 품어주고 더없는 불제자의 관계로 다시 법기를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함남규 동명부대장은 “금번 방문이 부대에 큰 힘이 되기에 감사드린다”며 “더욱 정성을 다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는 유엔평화유지군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리랑카 장병들도 함께 자리해 한 마음으로 세계의 평화와 희망을 발원했다.

한편, 기원 법회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부르글리아 모스크를 찾아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이슬람 고위 종교지도자)와 환담을 갖고 평화안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드라드 합발 수니파 무프티는 “불교는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와 이슬람의 가르침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종교로 인한 갈등은 불행한 일이며, 종교 갈등은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할 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교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예우하고 있고,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곳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스님은 부르글리아 지역 현안 문제인 공동묘지 부지 매입을 위해 불교계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총무원장 스님은 레바논 부르글리아 시청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동명부대 물품 공여식에 참석, 하산 압둘라 시아 무프티, 미카엘 아브라스 로마가톨릭 대주교, 나빌 하지 마론가톨릭 대주교 등 종교지도자들과 만나 평화 안착을 위한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조계종 법인 197개중 111건

2월 23일 1차 법인 56.3% 등록



▲ 조계종 법인법 등록상황을 설명하는 이석심 차장

조계종 법인 197개중 111건(56.3%)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계종이 법인관리법 시행 이후 2월 23일까지 접수한 1차 법인등록 현황이다.

등록현황 종류를 보면 사찰보유법인이 성류불교문화재단등 8건(7.2%), 사찰법인 세등선원등 4건(5.1%), 사찰출연법인 동화복지재단등 28건, 사찰공동출연법인 직지사복지재단등 1건, 승려법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등 64건, 종단법인 조계종사회복지법인등 62건 등 111건이다.

이중 사찰 보유법인 11개중 선학원과 보리동산, 법보선원이 미등록 했다. 사찰법인은 만불회와 능인선원, 승산국제선원이다. 승산국제선원은 외국에 회원이 산재한 관계로 총회가 열리면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인등록 마감후 추진위원장이 보류요청은 했지만 이미 입법화 되어 있기때문에 권리제한은 유예한다. 그러면서 등록은 계속 받는다. 등록후 달라지는 점은 실질적으로

사찰인 사찰보유법인과 사찰법인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찰이 아닌 법인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조계종의 법인관리법 기대효과는 법인이 지역사찰과 협의해 조직을 형성해 공동활동을 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교 활성화 계기를 만드는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조계종 총무원 이석심 차장은 “지금 197개중 111개가 등록된 것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치적 악성루머인 ‘질을 빼앗는다’는 소문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이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또 “법인 관리법 취지는 사찰을 법인에 등록 말고 단일 승가공동체를 위해 종단에 등록하라는 것이다”며 “미등록 법인과 종단이 관계를 가지러는 것은 94년 개혁회의때 만들어진 입법이다. 종헌 9조 3항은 미등록법인과 사찰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차장은 “복지법인과 장학법인은 권장하고 있다”며 “모든게 법인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강조했다.

삼광사, 3.1절 맞이하여 1만여 명 동시에 독립만세 삼창

삼광사 부산금강불교대학 졸업식도 개최

삼광사(주지 무원 스님)가 3월 1일 오전 10시 지관전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하며, 3.1절을 맞이하여 애국지사 및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과 독립만세 삼창을 외쳤다.

삼광사는 정기법회에 동참한 주지 무원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을 비롯하여 신도회장 이현승 국회의원, 나성린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신도 1만명이 동참했다.

법회 축가를 대신하여 화엄합창단, 어린이합창단과 함께 신도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3.1절 노래를 합창했으며, 이어서 3.1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최주덕 신도회장의 선창으로 1만여 명이 동시에 만세 삼창을 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를 받은 날이 2월 14일인데, 그 날을 발렌타인데이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며, “3.1절 96주년을 맞이하여 애국지사들의 나라사랑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애국하는 길을 스스로 찾아서 실천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삼광사 산하교육기관 부산금강불교대학(학장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이 2월 28일 오후 6시 30분 지관전에서 2014학년도 졸업식을 가행했다.

졸업식에는 천태종 변춘광 총무원장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스님, 규정부장 윤문스님, 광명사 주지 월장 스님과 최주덕 신도회장, 박영철 총동문화 회장 등 5백여 명이 동참했다.

금불대 불교학과 87명, 교법사 과정 55명 총 142명의 졸업생들이 수료했으며, 교법사 과정에게는 춘광 총무원장스님이 교법사 증서를 수여했다.

신행상에는 권순교(교법사), 설부선(중급) 수료생이, 우수상에는 강일선(교법사) 외 7명이 수상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법어를 통해 “배움은 깨달음의 과정이고, 깨달음은 삶의 방향을 혁신해 가는 힘”이라며 “여러분이 금불대에서 배운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되어야 한다. 지혜는 곧 자비로 드러나는 것이니 여러분이 배운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세상이 보다 아름다워 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생명나눔 이사장 일면스님

“사찰단위의 「생명의 씨앗등 캠페인」 진행”



▲ 신년기자간담회를 가지는 일면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올해도 불교계 안팎으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생명의 씨앗등 캠페인’을 통해 사찰단위의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2월 10일 신년기자간담회를 2015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사장 일면스님은 “지난해 사부대중 여러분의 도움으로 20주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다”는 감사의 인사로 간담회의 포문을 열었다.

일면스님은 “스님 1,000분 모시기 운동”이 생명나눔실천본부 창립 이래 매년 160만 정도가 동참하던 것에 비해 지난해 2배 이상 증가한 여세를 몰아 ‘스님 1,000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젊은 층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 다양한 온·오프 프로모션도 마련하고 있다”며 “조혈모세포 실기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대학생 활동가로 구성된 연합 동아리도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2014년 각 분야별 활동사항 및 사업결과를 발표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지난해 대학교, 군부대, 지자체 축제, 사찰 등에서 총 182회의 캠페인을 벌여 6,420명의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를 모집했다고 집계했다. 또한 60회 이상의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으로 총 2,900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환자치료비 지원 사업에서는 58명의 저소득·소외계층 환자에게 약 1억 5천여만 원의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 로, 모든 중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 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귀염송

『육자의귀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귀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실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 밀교연구소장 /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유물로 보는 비로자나불



▲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서울 地藏庵 木造毘盧遮那佛坐像)
소재지: 서울 종로구 창신2동 626-3번지
시대: 조선시대

이 불상은 현재 종로구 창신동 지장암 대웅전의 삼신불상(三身佛像) 중 중앙에 있는 목조비로자나불좌상으로 1924년 강제희(姜在喜) 거사가 지장암을 중창하면서 이곳에 모셨다고 전한다. 앞의 높이가 117.5cm달하는 중형의 목조불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이 상에서는 푸른 명주바탕에 붉은 글씨로 쓴 조성발원문(造成發願文)이 발견 되었다. 그 발원문에서 이 불상의 원 봉안처는 조선시대 왕실의 부녀자들이 출가 수행하던 자인수양사(慈仁壽兩寺)이며, 광해군의 정비인 장열왕비(章烈王妃, 문성군부인 유씨/1576~1623)가 광해군과 세자, 세자빈, 본인 및 작고한 친정부모, 작고한 대군과 공주의 천도를 위해 모두 11존의 불상과 불화를 동시에 조성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상은 11존상 중 하나이며, 현재까지 밝혀진 유일한 예에 속한다.

이 불상은 당대 최고의 고승 벽암 각성(碧巖 覺性)의 감수 아래 현진(玄眞), 응원(應元), 수연(守衍), 옥명(玉明), 법령(法玲), 명은(明崙), 청허(淸虛), 성인(性仁), 보희(普熙), 인균(印均), 경현(敬玄), 지수(志修), 태감(太鑑) 등 13명의 조상화원(造像畵員)과 성옥(性玉), 승일(勝一), 밀연(密衍), 의인(義仁) 등 4명의 지장(治匠)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17세기 각기 하나의 유파를 형성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조각승들로 당시 자인수양사 불사(佛事)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장암 비로자나불상은 당당한 불신표현에 얼굴의 표정은 순박하면서도 위엄이 있다. 몸체는 등에서 약간 앞으로 굽었고 법의의 옷 주름 표현이 부드러우며 볼륨감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생동감이 넘친다. 이러한 얼굴표현은 현진과 수연이 으뜸 조각승(首畵員)으로 참여한 불상들과 비교되며, 신체와 옷 주름의 표현은 응원과 인균이 만든 유파의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 "불교총전 업감연기편" 250p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10. 보궁수(寶弓手) 진언



옴 아자미레 사바하

만약 영화로운 벼슬과 직위가 오르기를 바라거든 이 진언을 외우라



포항 수인사 교도 금화보살입니다
20년 요리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버섯 맛간장' 을 선보입니다. 모든 재료 하나 하나 정성껏 준비해 교도 여러분의 건강을 서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으로 많은 분들이 맛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문 전화 (054)231-2520
전화주문 요리의 명가 다미쿡(DAMI-COOK)

금화보살 버섯 맛간장

재료
표고버섯 · 팽이버섯 · 느타리버섯 · 송이버섯 · 다시마 · 무 · 양파 · 통마늘 · 통생강

버섯의 효능
장운동 · 변비 · 콜레스테롤 · 혈당 당뇨 · 발암물질배출
숙취해소 · 항암효과 · 탈모 · 구토 · 설사 · 뼈와 이를 튼튼하게 하고
간질현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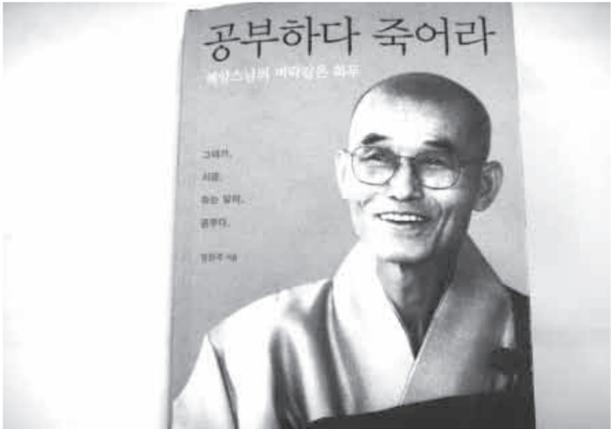
바다의 불로초 다시마의 효능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당뇨예방
갑상선예방 ·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가격
대(大, 1.8리터) 20,000원
소(小, 0.9리터) 10,000원
※ 10명 이상은 무료 배송 합니다.



불교서적
에세이

혜암스님이 수행했던 암자를 순례하다 〈공부하다 죽어라〉



3년 전 대구에 살 때 다니던 절에서 만난 보살님들은 한결같이 혜암스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혜암스님에게

화두를 받았다는 보살님도 있고, 몇 시간 동안 법문을 들었다는 보살님도 있었습니다.

이 보살님들은 하루 5시간 이상 화두참선을 하는 보살님들로 당시 다녔던 선방에서도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이었는데, 이 보살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잡고 열심히 수행할 수 있게 된 힘이 바로 혜암스님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혜암스님을 추천하지는 못했지만 이 보살님들로 인해 나 또한 스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신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혜암스님에 관한 산문집 〈공부하다 죽어라〉를 봤을 때 반가웠습니다.

〈공부하다 죽어라〉는 〈암자로 가는 길〉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명실공히 암자기행 전문가로 알려진 정찬주씨가 혜암스님이 수행했던 암자를 순례하면서 쓴 산문집입니다.

가야산 원당암은 혜암스님이 중정과 방장을 지내며 마지막 14년을 보냈던

곳입니다. 특히 스님은 원당암에 ‘달마선원’이라는 재가선원을 개원해서 불자들을 지도하셨는데, 이 선원이 우리나라 시민선원의 효시라고 합니다. 내가 다녔던 절의 보살님들도 이때 지도를 받았던 것이고, 그 힘으로 스님 못지않은 수행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혜암스님은 평소 재가 신도가 찾아오면 밤을 새워 법문을 해주실 정도로 대중에 대한 애정이 깊으셨는데 시민선원을 만든 것은 재가 신도에 대한 애정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대산의 영불암과 사고암, 지리산의 상무주암과 문수암, 그리고 태백산의 동암과 도솔암도 혜암스님과 인연 깊은 암자입니다. 26살 출가해서 82세 열반에 들 때까지 장좌불와, 오후불식, 일일일종식을 지켰던 혜암스님은 이곳에서 낮에는 나무를 하고, 농사를

짓고, 길을 닦고, 그리고 밤에는 주로 수행을 했는데, 밤새 꼴딱하게 앉아 화두참선을 하셨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홀로 정진하는 노장님이 내 마음속의 노장님입니다. 출가해서 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좁은 방을 이리저리 헤매고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노장님께서 앉은 채 정진을 하고 계셨어요. 화두일념, 그제 딱 보였어요. 그제 노장님 모습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 같았습니다. 수좌의 생명은 정진이지요. 그제 없으면 수좌라고 할 수 없어요. (p138-139)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에 사셨던 원당암 미소굴 앞에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스님의 친필이 새겨진 기둥이 서있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 생전에 후학에게

강조하셨던 말로 가행정진의 삶을 살았던 혜암스님의 가풍을 드러내는 문구입니다. 제자인 정견스님은 특별히 애를 쓰고 정진한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는다고 했습니다.

혜암스님은 본인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처럼 열심히 수행하셨는데, 스님의 수행이력을 찾을 수 있는 암자가 가야산 원당암과 퇴설암, 오대산 영불암과 사고암과 미륵암, 그리고 지리산의 상무주암과 문수암과 도솔암과 칠불사, 태백산의 동암, 영축산의 극락암 등인데 정찬주씨의 맑은 문장을 따라 이 암자를 순례하다보면 혜암스님의 중생에 대한 무한한 자비심과 구도를 향한 치열한 열정과 마주치게 됩니다.

정찬주/열림원/1만5천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지정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건



▲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 등 17건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보물 제1851호 ‘논산 쌍계사 소조석가여래삼불좌상(論山 雙溪寺 塑造釋迦如來三佛坐像)’은 1605년에 조성된 석가여래삼불좌상으로, 조선 후기 대표적인 조각승 원오(元悟)의 현존 최고 작품이자 그의 작품 특성이 잘 드러나는 현존 최고(最高)의 대작이다.

보물 제1852호 ‘남원 선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소조시왕상 일괄(南原 禪院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및 塑造十王像一括)’은 1610년과 1646년에 제작된 불상으로,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이 상들은 각각 17세기 전·중반의 시기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명부

(冥府) 조각의 대표작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853호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完州 淨水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은 순치 9년(1652)에 무염(無染)이 수조각승을 맡아 완성한 작품이다.

보물 제1854호 ‘김천 고방사 아미타여래설법도(金泉 古方寺 阿彌陀如來說法圖)’는 1688년에 조성된 고방사의 후불화(後佛畵)로서, 민원(敏圓)을 수화승(首畵僧)으로 하여 죽충(竹叢), 경찬(竟粲), 각림(覺林) 등 총 4명의 화승이 그렸다.

이 불화는 수화승 민원의 유일한 작품으로, 본존의 키형 광배(곡식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인 키)에서 17세기 후반 불화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보물 제1855호 ‘원주 구룡사 삼장보살도

(原州 龜龍寺 三藏菩薩圖)’는 1727년에 화승 백기(白基)와 영휘(英輝)가 조성하여 치악산 구룡사에 봉안했던 삼장보살도로, 「수륙무차평등제의촬요(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천지명양수륙제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오종범음집(五種梵音集)」 등, 수륙제(水陸齋)의식집에 근거하여 천장보살(天藏菩薩), 지지보살(持地菩薩), 지장보살(地藏菩薩) 등 세 보살의 회상(會上)을 묘사하였다.

보물 제1856호 ‘대구 서봉사 지장시왕도(大邱 瑞鳳寺 地藏十王圖)’는 18세기에 직지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수화승 세관(世冠)이 1741년에 삼옥(三玉), 월륜(月輪), 서징(瑞澄), 순간(舜侃), 존혜(尊惠), 우평(宇平), 응암(應岑) 등과 함께 조성한 불화

이다.

보물 제1857호 ‘영천 은해사 영불왕생첩경도(永川 銀海寺 念佛往生捷徑圖)’는 이 작품은 현존하는 조선 후기 극락왕생도 중 가장 이른 예이다.

이외에도 보물 제1858호 ‘보은 법주사 동종(報恩 法住寺 銅鐘)’, 보물 제1859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수미단(金泉 直指寺 大雄殿 須彌壇)’, 보물 제1860호 ‘부여 무량사 삼전배(扶餘 無量寺 三殿牌)’, 보물 제1861호 ‘보성 대원사 극락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寶城 大原寺 極樂殿 觀音菩薩, 達摩大師 壁畵)’, 보물 제1862호 ‘여수 흥국사 대웅전 관음보살 벽화(麗水 興國寺 大雄殿 觀音菩薩 壁畵)’, 보물 제1863호 ‘해남 대흥사 석가여래삼불좌상(海南 大

興寺 釋迦如來三佛坐像)’ 보물 제1864호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 보물 제1865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72(大方廣佛華嚴經 周本 卷七十二)’ 보물 제1866호 ‘삼국유사 권1~2(三國遺事 卷一~二)’ 보물 제1219-3호 ‘대방광원각수다라요경(언해) 권하 1의1~2, 2의1~2(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卷下 一之一~二, 二之一~二)’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관리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열 기자

初發心自警言文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 ✓ 쉬운 번역!
- ✓ 간결한 표현!
- ✓ 읽기 쉬운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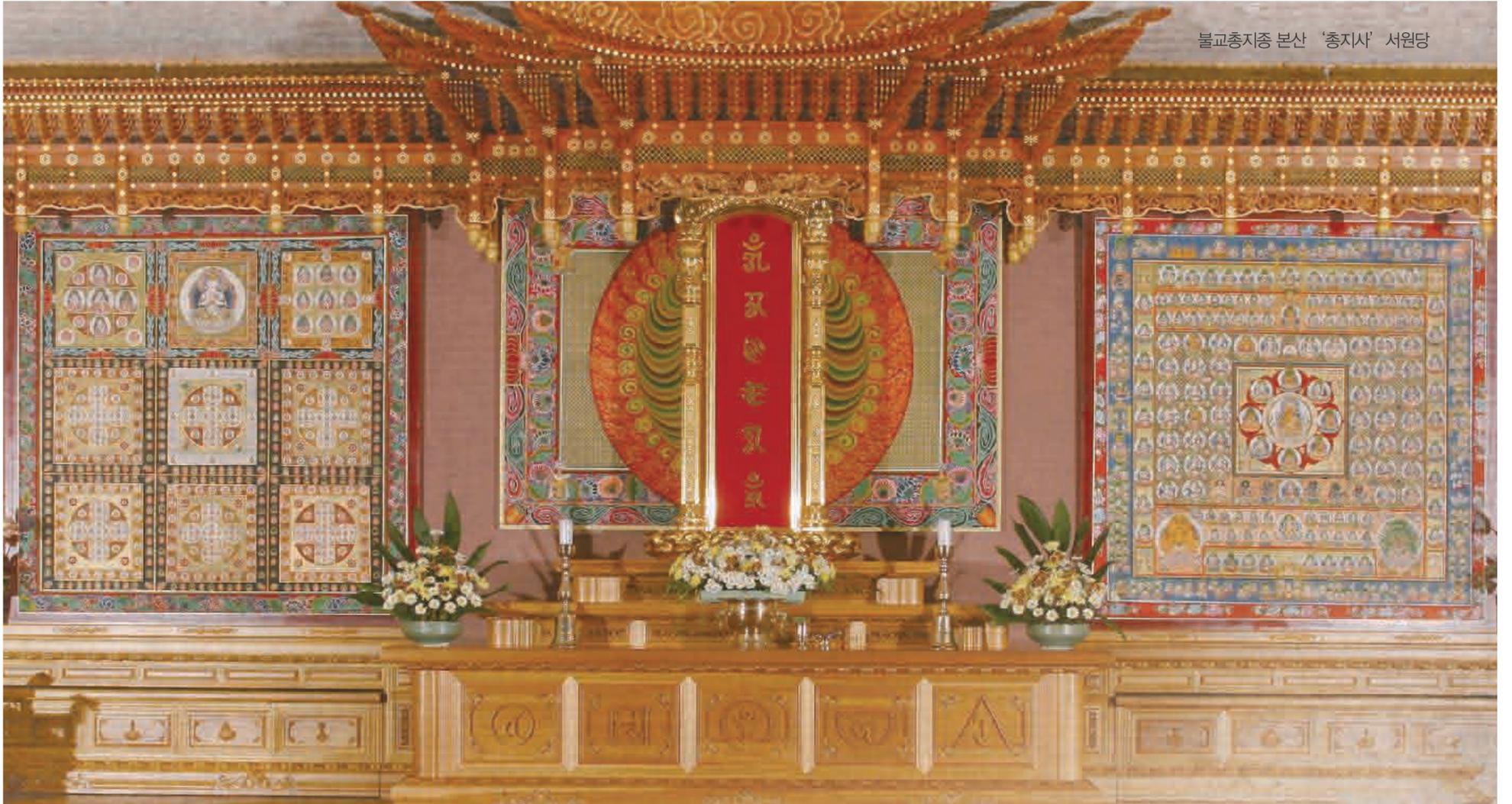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총지종 본산 '총지사' 서원당



불교의 생활화·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서원합니다.



불교총지종

총기 44년 새로운 모습으로
교도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원정대성사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정통밀교의 흥포를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교도님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총기 44년 상반기 49일 불공

총기 44년 2월 23일 ~ 4월 12일

장소 : 전국 서원당